



시대의 아픔 딛고 일어서는 예술가의 삶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어머니는 갈매 한복을 곁에 차려놓고 흥두께를 사러 장에 나가곤 했지요. 이것저것 팔라도 마뚝하지 않아서 흥두께를 고르지 못할 때 어성꾼이 나서서 흥두께를 사기도 하였답니다. 흥두께로 다듬어질 하는 소리 듣고 있으면 밤이 깊어가는 것이었지요. 갈매 한복 고운 어머니께서 지금은 쌀손이 다 되었습니니다.

갈매 : 짙은 초록색이란 뜻으로 갈매색, (있다 흥 무명 직삼에 갈매 무명 치마를 입었는데 매무새까지도 앞 전하다) (흥명희<임격정>) 또, 짙은 초록빛을 뜻할 때는 갈매빛이라 하지요.

흥두께 : 다듬어질감을 감아서 다듬어질할 때에 쓰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굵고 둥근 몽둥이. 다른 뜻으로는 소의 불기살을 일컫기도 하는데 흔히 '흥두께살'이라 해요. 또 쟁기질이 서툴러 갈리지 않고 중간에 남은 고랑사이의 생땅을 흥두께라 하기도 합니다. (흥, 소리가 나며 매잔 흥두께가 발바닥으로 사정없이 떨어지려는 찰나...) (회명희<훈불>)

어성꾼 : 하는 일 없이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이란 뜻이요,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즉 거간꾼이란 의미도 있어요.

마뚝하다 : 주로 '~않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제법 마음에 들 만하다는 의미를 갖지요. (이성신 교장은 김형수의 전하 서류를 갖춰 결재를 맡으로 들어가자 몹시 마뚝지 않은 인상으로 트집을 잡았다) (전상국<음지의 눈>) 안명옥(시인·고양에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박완서 작 '나무'

1970년도 <여성동아>의 장편 공모에 당선된 '나무'는 박완서의 데뷔작이면서 대표적인 장편소설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성장소설, 세대소설, 전후소설이요. 1951-1952년에 걸치는 겨울을 시간적 배경으로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 소설이요, 고백적, 회상적, 체험적, 시대 증언적, 사실적 문제가 특징이요. 담담하면서도 섬세한 감성을 소유한 주인공 이경은 두 오빠를 실수로 죽게 했다는 죄책감과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요. 옥희도는 가난한 화가지만 진실을 꿰뚫어 보는 예술가적 안목을 지녔지요. 미군 예인의 초상화를 그려서 먹고 살지만 진정한 화가가 되려는 과묵한 성격의 지닌 인물이지요.

한국전쟁 와중에 폭격으로 두 오빠를 잃은 이경은 서울의 고가에서 흠여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다. 오빠들이 죽은 후 그녀의 어머니는 삶의 활기를 완전히 잃고 산다. 그녀는 이런 어머니와 암울한 집안 분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이경은 서울 명동의 미8군 PX에 초상화부에서 미군들로부터 초상화 청탁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옥희도라는 화가가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옥희도는 '환쟁이' 들

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식구가 불었다는 압박감이 이경을 전에 없이 활기있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옥희도는 다른 '환쟁이'들과는 달랐으면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경은 황량한 풍경이 담긴 눈을 가진 옥희도에게 마음이 끌린다. 어느 날 이경은 옥희도에게 다이아나 김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을 소개해준 일로 그가 상심하는 모습에서 당혹해한다. 옥희도의 제의로 저녁 식사를 한 그들은 명동거리로 거닐며 서로의 고독을 느낀다. 한편, 황태수는 이경의 사랑을 얻고자 하지만 그

체험 바탕으로 한 성장소설 '부우연'...황량한 심성 표현

녀는 오로지 옥희도에게만 사랑을 느낀다. 이경은 옥희도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만, 옥희도는 어울리는 사이가 아니라 한다. 사랑하는 사이보다는 어울리는 사이가 더 축복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황태수와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말한다. 옥희도는 진짜 화가가 되고 싶다고, 미치도록 그리고 싶다고 말하고는 며칠 동안 나가지 못함을 이경에게 말한다. PX에 나오지 않는 옥희도를 찾아가 그녀는 옥희도의 집, 캔버스 위에서 하나의 고목을 본다.

결국, 옥희도와 이경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경은 황태수와 결혼한다. 세월이 흘러 이경과

태수는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간다. 어느 날 신문에서 옥희도 유작전의 기사를 읽고 태수와 함께 그곳에 간다. 거기서 이경은 지난날 옥희도의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이 지금의 자신에게 나뉘어있음을 알게 된다. 전쟁 당시의 자신의 삶과 옥희도에 대한 회상에 잠긴다.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핏빛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과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정신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전쟁은 삶의 시련을 주고 있으며, 그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근본적인 층위에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존재하지요. 또한 '나'와 옥희도는 전쟁 상황 속에서 상처를 안은 채 생활해 나가야 예술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유의식을 보지요.

옥희도의 그림은 한발에 고사한 고목으로 인식되나 세월이 흘러 가치를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전쟁의 상처가 후회하고 일상적인 상식이 자리하면서 추운 겨울을 참고 이겨내는 나무로 보고 있지요. 이 작품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시각적 상상, '부우연' 휘장, '부우연' 캔버스와 같은 '부우연'은 심성이 황량한 아날까요?

옥희도는 꽃과 무성한 잎을 다시는 피우지 못하는 고목이 아니라 잠시 성장을 멈추고 어려운 한 시기를 극복하는 나무를 그림으로써 진정한 예술가가 된 것이요. 시대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예술가의 삶과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을 깨닫게 하고 있지요. 안명옥(시인·고양에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사성당과 교우문제 등 주제·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 e-메일:rolling@paran.com)

좋은 경전 문구 소개해 주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싶는데 그냥 짧게 명언처럼 제 책상에 붙여 놓을 문구들 좀 소개해 주세요. (ID:성실양-)

힘들 때일수록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봐요.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은데 몇 가지만 뽑아 올립니다. 화이팅!

■ 넓은 들뜬에 후수가 있어 그 물이 맑고 깨끗해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말라 없어진다. 이처럼 아무리 귀한 재물이라도 아껴 쓰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 베풀지도 못하면서 모르고 지키느라 걱정만 하다가 임종과 함께 잃어버리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위해 쓸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 쓸 줄도 알아 그 목숨을 마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잡아함경>

■ 덧없는 생각들을 끊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낙담하고 안락해진다. 무엇이 덧없는 생각인가? 육신에 매달리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 좋고 나쁜 느낌에 매달리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 보고-느낀 생각들이 덧없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 <잡아함경>

■ 우리들을 생존에 얽어매는 것은 집착이다.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그 집착을 모두 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모두 초월해 버린다. 법이 묶는 허물을 벗어버리다. <숫타니파타>

■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자기를 위할만한 곳에서 구출하라.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그 자신을 끌어내듯. <법구경>

■ 마음은 움직이게, 생각은 신중히,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법에 따라서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법구경>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실에서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진산!!

특허권소유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면역학연구실

“진산”이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산은 인삼에서 추출한 소량의 특허성분으로서 적은 생산량과 고가의 가격으로 그동안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으나 금번 고농축의 진산겔이 출시됨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진산을 구입할 수 없었던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적인 연구개발로 국내외 특허가 증명해주는 '진산'

인삼속 진주 '진산'이란?

- 인삼 1톤에서 30kg 정도의 극히 적은양 만이 추출되는 인삼 다당체로서 국내 유일의 특허 물질(특허 144130호, 0361187호)
- 과학기술부 지원으로 한국 원자력병원에서 13년 이상의 연구 끝에 개발하여 특허소유
- 진산을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주)코인텍에서만 보유 하고 있으며 현재 제품으로 개발되어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가족! 건강! 생명! 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500박스 한정판대
온가족의 건강 '진산'으로 지키십시오!
• 특별공급가격
605,000원 → 198,000원

• 제품구성: 진산겔 1박스(20g×60포)

원자력 병원이 개발한 세계적인 특허로 만든 **진산膏** (고)

• 진산고 특별보급 10세트

※본 제품은 식품위생법상 효능 효과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제조원 (주)코인텍 | 발행처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팀 | 구입문의 **080-035-0303**